



농협은행 전북,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지난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가 인증하는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가입식은 김성훈 본부장과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명문기업’ 616호 인증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NH농협은행 전북본부를 포함하여 18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객 기업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으로, 사랑의열매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3년 이내 기부 약정 시 가입이 가능하다.

김성훈 본부장은 “지역과 상생하는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된 것이 무척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 학부모커뮤니티 ‘온맘’ 재능기부

전주교육지원청 학부모 커뮤니티 ‘온맘’은 6월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심폐소생술(CPR) 체험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온맘’은 2024년 31명의 전주시 학부모들로 창단 올해 37명 전체 회원이 응급처치 강사평정을 수료한 후, 전주팔복초 안전체험관에서 매주 4시간씩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 김경기 교육장은 “지역사회의 생명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온맘’의 활동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들의 자발적이고 의미있는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도동동, 취약계층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최근, 1일 1가구 소통행정으로 발굴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으며, 촬영된 사진은 액자로 제작되어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촬영 협조 및 액자 제작을 지원받았으며, 관내 업체인 셋별 사진관 H.STYLE 강순경 남원점의 재능기부와 화인당 한복체험관의 이벤트 협조로 이루어졌다.

이병진 지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꽃이야기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죽향동은 임접숙 동장과 사회보장협의체 김영권 민간위원장은 지난 12일 1가구 소통행정 일환으로 정기 나눔에 동참한 꽃이야기(대표 박금지)에 착한가게 30호점 현판을 전달하였다.

이번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받은 업체의 정기기부는 나눔에 동참한 다른 후원자들의 재원과 함께 우리 죽향동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나눔·공유 사업에 소중히 쓰여질 예정이다.

박금지 대표는 “두분 위원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역 봉사 활동과 홍보를 통해 방법을 알게 되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폭염에도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전북자치도, 희망여름 나눔 캠페인 전개… 기부금 1억2000만원으로 도내 취약계층 물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희망여름 착착! 착!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폭염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여름 물품 지원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된 1억2,000만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진된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은행, 전주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전북권역본부, 아너소사이어티클럽 회원 등 7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여름형 쿠키 꾸러미 400개를 직접 제작했다.

꾸러미는 비타민, 파스, 모기기피제, 관절보조식품, 여름이불, 잠복 건강차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북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휴식기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아너소사이어티클럽 신동식 회장과 회원들이 전달한 2025년 1호 기부금에 대한 지정 기부식도 함께 열렸으며, 해당 기부금은 전북도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북협회,



전북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회 등 4개 기관에 전달됐다.

도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8월까지 도내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여름형 꾸러미 제작 및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총 1,520세대에 시원한 여름을 선물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함께 행복하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나눔의 실천들이 많아져야 한다”면서, “도민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장은 “희망여름 착착착을 통해 연중 나눔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하며, 도민의 안녕을 위한 더 많은 나눔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영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나눔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말처럼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주위에 어려움 이웃들을 상시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인월 전통시장서 상인 격려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이 13일, 인월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갖는 시장소통으로 시장이 긴다를 추진했다.

이날 활동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인월시장을 찾은 시민과 현장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경식 시장은 인월 시장의 각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러 고충을 공감하는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전통시장 이용 시 불편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현장 소통에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상인들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많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해 각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 곳곳에 퍼지는 이웃사랑… 기부·착한가게 가입 잇따라

익산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이 확산하며 따뜻한 복지공동체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

익산시는 지역 곳곳에 착한가게를 통한 정기기부를 비롯해 물품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영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술가술갈비 익산 마동점과 돈잡꼬 영등점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정기기부 참여에 감사를 전했다. 이들 가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기부금은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영등1동 특화사업에 활용된다.

중앙동에서도 한우검정제지 정육식당'이 착한가게에 동참해 매월 수익 일부를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에 옮겼다.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가게와 같은 민간 나눔 자원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같은 날 마동에서도 '케이엠정보시스템'이 정기기부를 약속하며 착한가게 현판을 받았다. 케이엠정보시스템은 지역과 함께 성장한 만큼 자치단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하며 착한가게에 가입했고, 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착한가게를 통한 정기기부 외에도 생활 속 나눔도 이어졌다. 용인면 새마을부녀회는 어려운 이웃 80여 가구에 물김치와 갈집이 반찬을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연탄 사용 가정을 찾아가 연탄 600장을 직접 전달하고, 주거환경 정비도 진행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읍시의회 근현대문화유산 연구회, 연구활동 착수

정읍시의회(의장 박인) 의원연구단체 ‘근현대문화유산 재발견 연구회(대표 이도형)’가 지난 12일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의 대표인 이도형 의원과 김승범, 한선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회 활동 방향과 추진 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회는 지역 내 봉래마을 삼강문 옛 호남선 페터널과 철교, 구 운암수력발전소 등의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가치 규명과 등록문화유산 지정 등의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11월까지 현장 조사 등을 통한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연수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최근,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 및 교(원)감을 대상으로 2025 특수(통합)교육 이해를 위한 일반학교 관리자 연수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관리자들의 특수(통합)교육에 대한 법적·현장적 이해를 높이고, 통합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강의에서는 이승준 변호사(리엔정 법률사무소)가 강사로 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지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2부 강의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기타리스트 이상현 군과 그의 어머니 김경식 씨가 강사로 나서, 진단 이후부터 음악을 통해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어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유공자 표창

진안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 부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이번 개최됐으며 각 읍·면장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최종 12쌍의 부부가 선정됐다.

선정자는 △진안읍 김대홍, 오성자, △진안읍 신재열, 윤주영, △용담면 이충덕, 김봉수, △안천면 김유식, 안경순, △동천면 이기홍, 성조룡, △상전면 강남균, 임일배, △백운면 정병근, 이금옥, △성수면 김명수, 송금진, △미령면 송동열, 조은행, △부귀면 김왕곤, 신소금, △정전면 안순용, 나양오, △추천면 배재호, 김연화 부부이다.

이들은 △활발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 실천, △사랑과 신뢰로 장애를 부부애로 극복,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평등한 가족문화에 기여 등 다양한 이유로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장미꽃을 달아주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장미꽃의 꽃말인 ‘사랑과 존경’에 맞춰 “이해해줘서 고맙워”, “사랑합니다” 등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전춘성 군수는 축사를 통해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이며, 지역사회를 튼튼히 하는 시작점”이라며 “여러분처럼 존중과 배려로 살아가는 부부가 있기에 진안군은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며 “군에서도 앞으로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은장학문화재단, 익산 남성고서 ‘JB인문학 강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12일 익산 남성고등학교에서 2025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강연자로 나선 두기 떡볶이 김관훈 대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본 적이 있나요?’라는 주제로 고등학생 230명에게 창업 스토리와 삶의 철학을 진솔하게 전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관훈 대표는 꿈과 목표 없이 방황하던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떡볶이 동호회 카페를 직접 만들고 활동한 경험과 브랜드를 성장시키기까지의 과정 등 성장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단순한 진로 선택을 넘어 스스로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훈 대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용기를 내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0년 단위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비교적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강연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정말 이야기를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인문학적 시각에서 들을 수 있어 색다르고 감동적이었다”며 “삶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순창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함께주말’ 운영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남상길)은 지난 14일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바다00층 짜리집 뮤지컬을 관람하는 ‘함께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함께주말’ 프로그램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형제, 자매, 부모님 모두가 참여하여 문화체험을 하는 가족 나들이 형식으로 기획하였다.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공연 전 그림책을 미리 읽어보고 바다모험을 하고 싶은 이유나 삼행시 등을 미리 적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여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자리매지 등을 통하여 즐거운 문화 체험이 되도록 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금과초등학교 학부모 이민식은 ‘상대적으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기본 에티켓을 배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순창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들은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및 보호자 지도에 만전을 기했다. /순창=이왕일 기자